

배드민턴 안세영, 말레이시아 마스터스 결승 진출

등록 2022.07.09 18:37:26

3개월 만에 우승 도전...中 천위페이와 우승 다툼



[쿠알라룸푸르=AP/뉴시스] 안세영(4위)이 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말레이시아 마스터스 여자 단식 2회전에서 줄리 다왈 야콥센(39위·덴마크)을 물리치고 환호하고 있다. 안세영이 2-0(21-11 21-13)으로 승리해 8강에 올랐다. 2022.07.07.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한국 배드민턴 여자 단식의 간판 안세영(20·삼성생명)이 말레이시아 마스터스 결승에 진출하며 3개월 만에 우승을 노린다.

안세영은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2022 말레이시아 마스터스 여자 단식 준결승에서 그레고리아 마리스카 툰중(인도네시아)를 세트 스코어 2-1(21-18 13-21 21-8)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세계랭킹 4위인 안세영은 1세트를 접전 끝에 따낸 뒤, 2세트를 기세에 밀려 내줬지만 3세트를 일방적인 경기력으로 따내며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로써 안세영은 지난 4월 한국 오픈 우승 이후 3개월 만에 시즌 두 번째 우승을 노리게 됐다.

결승 상대는 중국의 천위페이(세계랭킹 3위)다.

